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 3차 지원심의 - 심의총평

- 사업유형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 3차 지원심의
- 심의분과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회의일시 : 2019년 9월 11일(수) 10:3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및 실험무대

심의 지원서에서 안무가 스스로 제시한 주제·의도·방법에 있어 변화 여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우선적으로 경청하여 작품의 완성도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기획의도의 달성도를 유념하여 검점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결과치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본 심의에서는 안무가가 제안한 예산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다만 대관료처럼 명확한 비용이 과다 책정한 부분은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다. 심의의 주요 논의점은 본 사업 이후 안무가들의 역량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용계의 주요 변화와 경향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또한 적극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창작 작업에 있어 각 매체들, 전문인력, 공간에 대한 이해도와 관계선까지 감안하여 작업에 임하여 최종 작업의 완성도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였는지의 여부까지 확인하였다.

본 사업은 안무가의 예술적 역량강화를 위해 작품 제작의 중간 단계의 지점에서 다양한 조언과 질문이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긍정적으로 작동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 안무가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았고 자신의 안무 작업에 대한 책임과 의지가 감지되었다. 다만 중간 단계에서의 필연적 수정과 긍정적 과도 수정, 안무적 전략 변화에 대한 배경과 근거가 보다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더불어 최종 작업에 대한 예산 작성의 섬세함, 해당 작품에 대한 장기적 미션이 구체화가 보강되었으면 한다.

본 사업은 작업에 대한 리서치부터 시작되어 완성도 높은 작품 공연에 이르는 다단계의 사업임으로 안무가 스스로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최종 단계 까지의 조언과 과정에 관한 효율적 진행이 요구된다.

2019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